제주형 행정체제 용역 첫 단추부터 '비공개'

도, 어제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올해 내 개편안 모형·주민투표안 등 마련 계획
용역 착수보고회 밀실 진행 논란 자초 비판도

제주에 새롭게 적용할 행정체제 개편안 모형을 마련하고 주민투표 등 공론화 과정을 수행할 용역이 본격 시작됐다. 다만 용역의 첫 단계부터 비공개로 진행되며 향후 도민의견 수렴 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제주농어업인회관 2층 회의실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 위원 및 행정지원단 등이 참석했다.

이 용역에는 사업비 15억 원이 투입되며 용역을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모형안과 도입 방안, 주민투표 방안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용역은 오는 12월까지 (주)한국리서치, (사)한국지방자치학회, 갈등해결&평화센터 등 3개 업체가 공동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3월까지 특별자치도 성과분석을 거쳐 4~6월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모형안을, 7~8월은 행정체제 구역 설정안을 도출해낸다. 이후 9~10월에 거쳐 도출한 모형안에 대한 도민설명회와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미래세대 포럼,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11월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최종 권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그런데 용역의 첫 단추인 착수보고회가 이례적으로 비공개 방침으로 진행되면서 '공론화 용역'이라는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연구진이 과업지시서에 따라 향후 과업 수행 계획의 큰 틀과 방향을 명시한 착수보고 설명 자료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개회와 참석자 소개, 행개위원장의 인사말까지 공개된 후 언론 관계자 등 일반인의 입장은 사실상 차단됐다.

앞서 도민사회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제주도정이 미리 답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기도 했다.

제주도는 행사 종료 이후 보도자료를 내 "(보고회에서) 세대별 특성에 맞는 접근, 논리적 수용성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함께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논리 개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개위 위원 등에서 착수보고회 내용이 확정된 게 아닌 만큼 보고회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추진 방향이 확정된 착수보고서를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게 됐다"며 "확정된 이후에는 이를 공개하면서 투명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박진 장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면담 박진 외교부 장관이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민 안전한 '건강도시 제주' 실현

도, 올해 안전·재난·위생·건강 등 1178억원 투입
도민안전실→도민안전건강실 확대 개편 등 중점

제주도민의 안전한 건강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본격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안전·자연재난·사회재난·보건위생·건강관리 분야에 총 1178억원을 투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34.2% 증가한 규모다.

앞서 도는 지난달 조직개편 당시 기존 도민안전실에서 보건과 건강 분야까지 넓힌 도민안전건강실로 확대 개편 하는 등 도민이 안전한 건강도시 제주 실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예방 중심의 안전환경 조성, 선제적 재난예방·대응 체계 구축, 사회재난 대비 및 완벽한 대응태세 구축, 공공·필수의료 확충 및 식품 안전관리 강화, 건강·생명 지키는 도민 건강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편성된 예산을 보면 예방중심의 안전환경 조성에 119억원을 투입해 범죄와 사고 우려지역을 선정해 안전취약지역을 개선하는 안전사업지구 시범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도민안전보험을 지속 운영한다. 더불어 민·관이 함께하는 다양한 안전문화 실천을 도민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는 특히 '2023년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로 음주문화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한다.

또 선제적 재난 예방·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235억원을 투입하며 이중 재난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 예·경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사회재난 대비 및 완벽한 대응태세 구축을 위해서는 11억원을 투자해 사회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 개선·보완, 안전한국훈련,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센터 운영에 5억 원, 지역축제, 노후기반시설 및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등에 1억 원을 투입해 생활안전에 기반한 사람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필수의료 확충과 도민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719억원을 투입해 지방의료원에 대한 급성기 병상 증축(119병상) 및 중환자실과 수술실 장비를 현대화하고,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과 보건소 의료장비 보강사업 등 지원을 통해 도민 의료 이용 불편 해소에 나선다. 또한 취약지역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닥터헬기 운영에 46억원을, 도내응급의료기관(6개소)과 권역외상센터(1개소) 등을 지원해 도민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이태윤기자

크루즈 운항 대응 '미흡'

>>1면에서 계속 이어 김 교수는 "크루즈가 올해 대만에서 제주에 오는 것이 확정돼 있지만 대만에서 올라오는 크루즈들이 일본을 경유하고 부산을 찍고 있는데 대만에서 올라오면 제주가 더 가까우니까 그걸 유치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싱가포르에서 세계일주 크루즈 유치를 잘 하고 있는데 월드와이드 크루즈가 제주에 단순히 들리는 게 아니라 1박 2일이나 2박 3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코스타크루즈 등 외국배가 일본에 들어 갈때는 반드시 해외 항차를 하나씩 찍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산이나 속초를 선택하고 있다. 그런 것도 제주가 좀 적극적으로 일본이랑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2016년 한한령이전 국내 크루즈 점유율은 제주가 64%로 국내 기항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중국인 관광객 급감후 부산에 집중(2019년 점유율 65.5%)되고 있다.

"위성정보 농업·도시계획 수립 등 범위 확대"

국토부, 국토 관리방안 세미나
우주산업 협력체계 구축 지원

'뉴 스페이스' 시대를 주도하고 우주산업 기술을 지방에 확산하기 위한 국토부의 첫 위성정보 활용 국토관리 세미나가 제주에서 개최됐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위성정보 활용 국토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토지리정보원, 인하대학교, (주)컨텍에서 국토위성 활용정책, 다양한 위성정보 빅데이터 구축·활용 및 도시관리기술 등 국토위성 활용방안과 국토관리 활용 관련 기술개발 현황을 발표하고 산·학·연·관의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위성정보는 기상·국방·통신 뿐만 아니라 AI와 딥러닝 기반의 분석 기술을 접목하여 전 세계 작황 예측을 통한 '스마트 농업', 넓은 지역에서 동시 다발로 발생하는 도심의 변화를 분석해 '도시계획을 수립' 하는 등 활용범위가 점차 확대돼 가고 있는 추세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제주도청에서 위성정보 활용 국토 관리 세미나를 진행했다. 강희만기자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위성정보를 이용해 빅데이터를 구축·활용 기술과 지자체의 도시관리 기술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 이뤄졌다. 국토부는 향후 국토위성 활용성 강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위성영상을 국토모니터링, 자원 관리, 각종 재난·재해 대응 및 공간정보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2021년 3월 22일 국토위성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으며, 국토위성이 촬영한 영상을 국토위성센터에서 정밀 보정 후 위성정사영상으로 가공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국토위성 활용이 확산되도록 국토교통부가 앞장서서 산·학·연·관 우주산업 관계자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소통을 강화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윤기자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개설
과정명 : 한방약초와 발효효소

한방약초활용을 이용한 발효학, 식약청에 등록되어 있는 300여가지 식품을 이용한 건강발효효소 만드는 법과 한방다식 만들기, 꽃법제, 기혈진액효소만들기, 여성, 남성에 좋은 효소환 만들기수업, 기존에 발효음료 만드는 방법과는 다른 첨가물을 이용한 건강하고 올바른 발효음료 만들기 수업이 이루어진다.

인원 20명 선착순 (등록비 25만원)
교육장소 :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3월 7일(화) 개강, 12주간
매주 화요일 13시 30분 ~ 17시 30분(4시간)

■ 수강료 감면 안내
가. 10% 감면 : 본교 교직원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본교 발전기금기부자 본인(500만원 이상자), 제주대학교병원 직원, 4개 학기이상 연속 수강생, 한 학기당 3개 강좌 이상 동시 수강생
나. 20% 감면 : 본교 교직원(부설초,중,고 포함), 본교 재학생(휴학생 제외), 시간강사, 본교 발전기금 기부자 본인(1,000만원 이상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본교 퇴직자(5년이상 근무),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본인), 국가유공자(본인)
다. 제출 서류 : 감면신청서(대학 소정 양식), 감면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저소득층 확인증명서, 출강확인증,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카드 사본 등)
* 수강료 감면 신청 기간은 "공지사항-수강료감면신청안내" 게시글 별도 확인 필요, 중복감면 불가
** 수강료 감면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원 행정실(754-2705)로 문의 바랍니다.

힐링한방보건의료재단
2년연속 세계명품브랜드 대상 수상

접 수 담당자 010-6761-3474 평생교육원 064-754-2705

토 지
구합니다
· 제 주 시 ·
구좌읍 조천읍
조 건
① 전원주택용 부지
② 허가득한 사업부지
③ 계획관리지역
베 네 건 축
베 네 하 우 스
문의 : ☎ 064-723-1105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제)州(주) 리모델링
辛(신)一(일)祚(조)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붙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 징크 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는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